

“내가 책임자” 민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후끈’

6·3 지방선거 D-79

후보 7명 참여 첫 온라인 합동연설회
행정통합 청사진·경제 발전 전략 제시
대통령 ‘인연’ 경쟁...협력 가능성 부각
17-18일 조별 토론...19-20일 예비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합동연설회는 통합특별시장 후보를 가리는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관련기사 2·3·4면

7명의 후보는 이날 행정통합 이후의 도시 비전과 호남 경제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첫 연설자로 나선 정준호 국회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최초 발의자이자 통합 설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통합도시는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이 돼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는 “1등 도시를 위한 도전은 뻔한 선택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경분보다 패기, 답습보다는 혁신, 기득권적 사고보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 붙은 '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영록(왼쪽부터)·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2010년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만나 16년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대통령과 특별시장은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눈빛 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경하며 자신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20조원 통합 지원금을 첨단기업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에 투자하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산업용 전기

요금 100원 시대를 열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위대한 성장을 통 크고 담대하게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 역시 “지난 대선 경선부터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며 “광주·동부·무안 3장사 분산 행정체제와 신재생에너지 수도 조성, AI 기반 첨단산업 벨트, 농어가 기본수당과 1시간 생활권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장 출범으로 어

느 한쪽도 소외되거나 손해보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성과로 검증된 능력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은 자신의 중앙정부 경험을 부각시켰다. 이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정부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략사업을 통합특별시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를 동부권, 서

남권, 남부권, 광주 연계권, 광주도시권 등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기능을 특화해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좋은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확대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광주 인공지능 산업과 전남 에너지 산업을 연결하는 미래 산업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대학, 일자리, 병원을 찾아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 인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며 “광주가 가진 첨단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남부 경제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가구 당 소득 증가, 예산 확대, 전남권 국립대 신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합의 등 8년간 전남도정을 이끌며 거둔 성과를 앞세워 “통합특별시장의 첫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전남과 광주가 제대로 균형발전을 이룩하는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4년 동안 통합특별시를 탄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전력투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 농식품 산업을 통합도시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뒤 “호남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산업 정책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2면에 계속 /진진수·양시원 기자

광주 기초단체장 경선 ‘국민참여·결선’ 도입

민주 시당, 경선 방식·후보자 확정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국민참여경선과 결선투표가 도입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회는 지난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 방식과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동·광산구, 100% 국민경선으로 선출

남·북구, 당원 경선 압축 후 국민경선

4곳 모두 과반 없으면 1·2위간 결선

지방의원 후보는 당원경선 통해 결정

동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자 선출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1위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경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남구청장 후보자 선출은 후보자가 5명인 점을 고려해 당원경선 방식의 예비경선을 실시해 2명으로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자가 8명인 북구청장 후보자 선출 역시 당원경선을 통해 5명으로 압축한 이후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1위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경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경선 후보는 ▲동구청장(3명) 노희용·임택·진전기 ▲남구청장(5명) 김병내·김용집·성현출·하

●광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가나다順)

지역	후보수	성명
동구	3	노희용·임택·진전기
남구	5	김병내·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북구	8	김대원·김동찬·문상필·신수정·오주섭·정다운·정달성·조호권
광산구	3	박병규·박수기·차승세

상용·황경아 ▲북구청장(8명) 김대원·김동찬·문상필·신수정·오주섭·정다운·정달성·조호권 ▲광산구청장(3명) 박병규·박수기·차승세 등이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은 당원경선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당원경선 결과,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청년·장애인 신인이 '가'번에 우선 추천하고 기초의원 재선 이상이거나 의회 의장 경력자의 경우 '가'번 추천을 제한한다.

또 해당 선거구에 여성·청년·장애인 신인이 없는 경우 4세 초과 남성 신인을 '가'번에 우선 추천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득표율 순으로 순번을 결정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투명한 경선 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Today

- 공보의 금감...전남 농어촌 '의료 공백' 4면
- “월주로 외곽에도 유희기”...유가족 '비통' 6면
- 제구력 장착 '이의리' 무사사구 원벽투 16면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매월 20만원 지급

★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웁니다.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1세가 된 아동(올해는 2024년, 2025년생,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